INDIE MUSICIAN

"인디 뮤지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대"

"음악을 한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한다.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음식점에서 일한다. 집에 돌아와 새벽 3시까지 음악 작업을 한다. 주말은 주로 공연이나 음악 작업을 한다. 인디 뮤지션으로만 남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다. 뮤지션이라면 누구나 스타를 꿈꾼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영향력 있는 뮤지션이 되기 위해,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등 스타가 되고 싶은 이유는 다양하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힘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진짜 뮤지션으로 활동하고 싶나' 아직까지는 '하고 싶다'가 답이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며, 음악을 한다."

글 김지현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jihyunsports@mtn.co.kr

힙합 R&B 인디 뮤지션 김태웅(활동명 '빅히어로') 씨 이야기다. 김태웅 씨가 인디 뮤지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내 인디 뮤지션이 처한 현실은 대부분 그와 비슷하다. 한동윤 대중음악평론가는 "신인이나 무명 인디 뮤지션은 대체로 생계를 위해 직장 생활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활동한다"고 말했다. 인디 뮤지션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부족해, 생활 자체를 힘겨워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볼빨간사춘기와 멜로망스 같은 인디 뮤지션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유명 스타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이들처럼 될 가능성은 극히 드물다. 해피로봇레코드 서현규 이사는 볼빨간사춘기와 멜로망스를 업계에서 '인디가요'를 하는 그룹이라 부른다고 말했다. 그는 "인디의 느낌이 묻어나면서도 전문적이고 대중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노래를 하는 게 볼빨간사춘기와 멜로망스"라며 "모든 인디 뮤지션이 인디가요 같은 대중성이 담긴 음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월 평균 공연 수입 60만 원

한국콘텐츠학회의 '인디 뮤지션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2016)'에서 인디 뮤지션 1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들의 월 평균 공연 수입은 60만 원이었다. 29세 미만 인디 뮤지션의 수입은 38만 원에 불과했다. 2011년 12월 유데이페스티벌 조직위원회와 청년유니온이 인디 뮤지션 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생활환경 실태조사에서는 응답자 60%가 월 평균 공연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응답자 평균은 69만 원이었다.

인디 뮤지션이 생활을 이어가려면 음악 활동 수입 외에 또 다른 수입이 필요하다. 발라드 인디 뮤지션 송권욱 씨도 "수입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다"며 "수입을 위한 업무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음악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을 위해 보컬 트레이닝과 밴드 수업을 진행한 뒤, 개인 작업실에서 곡 작업을 하거나 유튜브 커버 영상 등을 제작한다.

해피로봇레코드 서현규 이사는 "인디 뮤지션은 공연 기회가 적은데, 공연 출연료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소속사가 있는 인디 뮤지션은 공연 출연료로 보통 5만 원 정도를 받고,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은 3만 원 정도를 받는다. 인디 뮤지션이 이 출연료로 교통비, 연습공간 대여비, 밥값 등을 사용하고 나면 이익은 커녕 대부분 적자가 발생한다.

인디뮤지션 김태웅.

그렇다고 공연 기회가 많은 것도 아니다. '인디 뮤지션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5년 이하 인디 뮤지션은 1년에 공연을 29회 정도 한다. 여기에는 버스킹 공연까지 포함돼 있어, 클럽 같은 공연장에서 받는 출연료보다 적게 받거나 무보수인 경우도 많다.

게다가 인디 뮤지션은 항상 홍보 문제에 부딪힌다. 김태웅 씨는 "공연을 잡고 소속사에 들어가려면 노래를 알리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버스킹을 하고, 사운드 클라우드라는 유명 음악 유통 플랫폼을 이용해서 곡을 홍보한다. 하지만 이렇게 해도 홍보가 잘 안 돼 힘들다"고 고백했다.

한동윤 평론가도 "어느 정도 이름 있는 레이블에 속한 뮤지션들은 행사나 공연에 섭외되는 것이 수월한 편"이라며 "하지만 소속사가 없는 뮤지션들은 자기 작품을 홍보할 능력이나 시간이 부족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한다"고 설명했다.

볼빨간사춘기와 멜로망스 같은 인디 뮤지션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유명 스타로 발돋움했다.

인디 뮤지션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

어렵게 활동하는 인디 뮤지션을 위해 정부와 기업 등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오래 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을 비롯해 EBS, CJ문화재단, 신한카드 등 여러 공공기관과 기업이 인디 뮤지션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인디 뮤지션 지원사업으로 'K-루키즈', '우수 인디 뮤

인디뮤지션 송권욱.

지션 발굴 지원 사업', '인디 레이블 창작 활동 지원 사업' 등을 펼친 콘진원은 올해 인디 뮤지션의 해외 쇼케이스 사업도 지원했다. 또 콘진원은 EBS와 함께 2007년부터 'EBS 헬로루키 with KOCCA'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1월 30일 결승전이 펼쳐질 예정이다.

CJ문화재단은 2010년부터 인디 뮤지션 지원 프로그램인 '튠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공모전 누적 응모자 수는 2772명이다. 지난해에는 인디 뮤지션 362명이 참가했다. 인디 뮤지션 멜로망스는 튠업 17기, 카더가든은 튠업 19기 출신이다. 신한카드도 인디 뮤지션 발굴·육성 프로그램인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이어오고 있다.

뮤지션들은 소속사와의 계약이나 인디 뮤지션으로서 이름을 알리기 위해 이런 제도와 대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뮤지션들이 이 같은 제도와 대회의 존재를 모르고 있다. 특히 소속사 없이 활동하는 뮤지션의 대다수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대회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현규 이사는 "신한카드 루키 프로젝트, EBS 헬로루키 with KOCCA,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뮤직스탕스 같이 인디 뮤지션을 위한 많은 대회가 있다. 하지만 정작 인디 뮤지션들은 이 대회들을 잘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의 인디 뮤지션들에게 '이렇게 좋은 대회가 있는데 왜 지원하지 않았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이 '몰랐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송권욱 씨는 "인디 뮤지션을 위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고백했다. 김태웅 씨는 "인디 뮤지션 90% 이상이 인디 뮤지션 콘테스트가 있는지 모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동윤 평론가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 활동을 증명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1년에 두 번 창작준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이것도 홍보가 잘 안 돼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디 뮤지션을 위한 제도나 콘테스트뿐만 아니라 예술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여러 지원 사업도 있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달의 추천 인디 뮤지션

서현규 이사는 현재 콘진원과 EBS, CJ문화재단 등이 진행하고 있는 인디 뮤지션 프로젝트의 지원 범위나 제작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주변에서 혜택을 받은 뮤지션을 보면 뮤직비디오 촬영에서부터 음악 제작 비용까지 지원을 잘 받고 있다. 지원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런 지원제도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디 뮤지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개선한다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현규 이사는 "현재 힘들게 생활하며 자신의 음악을 꿋꿋이 이어가는 인디 뮤지션들의 음악 장르는 매우 다양하다"며 "정부나 기업에서 인디 뮤지션을 지원할 때 음악의 다양성을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많은 대회가 참가 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어 다양한 분야의 뮤지션이 참가할 수 없다. 주로 대중적인 음악을 하는 뮤지션이 혜택을 보는데, 참가 자격 제한을 최소화해 음악을 하는 뮤지션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게다가 대상이 되는 뮤지션은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뮤지션은 하나도 받지 못해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도 생긴다.

뮤지션 김태웅 씨는 "인디 뮤지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대"라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정기적으로 인디 뮤지션들이 공연할 수 있는 무대를 더 많이 제공하면 좋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또 그는 "인디 뮤지션을 위한 사이트를 만들어 '이달의 추천 인디 뮤지션' 같은 주제로 매달 인디 뮤지션의 프로필과 음악을 홍보해 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디 뮤지션 홍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한편 한동윤 평론가는 인디 뮤지션의 지원에 앞서 음원 시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 음원 시장은 사재기를 하거나 인기 예능 프로그램 출연 기회를 얻거나 인기 연예인이 인디 뮤지션의 곡을 언급해줘서 갑자기 음원차트 상위권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면 음원 수익으로는 거의 돈을 벌지 못한다"며 "창작자와 실연자가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도록 음원사이트와 음반제작사가 타협해 비율을 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현재 논의 중인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행된다면 인디 뮤지션이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생계유지를 위해 다른 일을 해야 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며 "또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금리 대출 상품이 늘면 그들의 생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경 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인디 뮤지션의 삶과 직업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인디 뮤지션 시장이 선순환적 구조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정부 지원은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성과로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플랫폼과 활발한 음악 활동을 통한 대중과의 조우 기회 확대, 음악의 다양성을 향유하는 사회 분위기 확충, 음원 수익 구조의 정상화 노력이 지원 사업과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EBS 헬로루키 with KOCCA.
ⓒ한국콘텐츠진흥원